건강 칼럼

어린이와 임신부의 독감예방 접종

김 이 곤
구암한의원장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타파가 물러가면서 조금 남아있던 후덥지근한 늦여름 기운마저 사라지고 무척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

어느덧 독감(인플루엔자)이 유행하는 계절이다. 최근에는 독감 바이러스 유행시기가 빨라져 11월이면 독감이 유행하기 때문에 10월까지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독감 백신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무료 접종을 시작했고 오는 10월 15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 만 75세 이상 노인(만 65~74세는 10월 22일부터), 임신부를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에 들어간다. 임신부는 올해 처음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독감 무료 접종 대상 어린이는 2007년 1월 1일~2019년 8월 31일 태어난 생후 6개월에서 12세다.

이 가운데 2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으로 독감 접종을 생애 처음 받거나 올해 7월 1일 이전까지 단 한번만 받아 면역이 완벽하지 않은 아이들이다. 이들 외 10~12세는 1회 접종만으로도 충분한 면역 형성이 된다.

보건 당국은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및 접종 2주 후부터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가능하면 오는 11월까지 2회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반면 의료 전문가들은 점차 빨라지는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를 고려해 이 보다 앞서 10월 말까지 끝마쳐 줄 것을 권장한다.

▲어린이 독감 예방 접종

특히 7~12세 초등생 연령의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통계를 보이는데 이는 사회활동이 왕성한 부모와 어린이의 학교·학원 활동이 바쁜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연령대는 특히 학교 등 집단생활을 통해 확산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예방 접종에 신경을 써야 한다.

되도록 접종 권장 시기에 맞도록 부모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며 접종 시기를 놓쳤어도 독감 유행이 내년 3~4월까지 계속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늦더라도 접종받는 것이 좋다. 예방 접종의 효과는 평균 6개월가량 지속된다.

▲임신부 10월 15일부터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임신기간 독감 예방 접종이 태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임산부가 독감에 감염될 경우 일반인에 비해 폐렴, 패혈증 등 중증 합병증 위험이 크고, 유산, 조산, 저체중아 출산 등 여러 위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또한 임신 중 접종 시 항체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돼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도 보호 효과가 있어 임신부 예방 접종은 적극 권고 되고 있다.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적절한 시기에 맞으면 된다. 다만 임신부의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접종 전 꼭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기고문

서민 위협하는 '3불사기' 조심하세요

이 지 원
남원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서민 3불 사기범죄를 아시나요? 이는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3가지 사기범죄인 ▲피싱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 피싱) ▲생활사기(인터넷사기, 취업사기, 전세사기) ▲금융사기(유사수신, 불법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 등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범죄는 27만 건으로, 전년 대비 16.6%가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전화금융사기가 21%, 인터넷 사기가 21.5%가 각각 증가했다.

사기범죄는 서민 경제를 악화시키고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를 파괴하여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범죄중 하나로 ▲피싱사기는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이를 이용한 사기수법이다.

이 중에는 전화를 이용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 또는 친인척의 사고를 가장해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과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인척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그리고 사용자에게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웹사이트 링크를 보내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정보를 캐내는 스미싱 등이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나 앱 설치 권유는 확인도 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한다.

또한, 공공기관이라며 현금인출을 요구한다면 즉시 끊고 112에 신고하여야 하고, 혹 돈을 이체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

▲생활사기는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중 사회적 약자들의 곤궁함을 악용하는 사기로, 인터넷상에서 중고장터, 공동구매, 가짜쇼핑몰을 이용해 사기를 치고, 회사 취업을 미끼로 비자금·발전기금·교육비 명목 등의 금원을 편취하는 취업사기, 집주인 행세를 하며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세사기 등이 있다.

이러한 생활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고거래 시 저렴한 가격에 주의하고 '사이버 캅'에 꼭 검색해보고 거래를 진행하고, 또한 취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개인정보만 전달하고 금품이나 사례금을 요구한다면 거절해야 한다.

전세거래시에는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금융사기는 저신용자·청소년 등 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가상통화·벤처사업 등을 빙자해 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 지급을 약정해 투자금 등을 수신하는 유사수신, 법정이자 초과한 이자를 수취 하는 불법대부업,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보험사기 등이 있으며, 투자 시 고수익을 약속한다면 의심해보고, 투자 전에는 반드시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문의를 해야 한다.

또한 즉시대출 및 저금리 전환 제안은 의심을 하고 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을 꼭 해야 하며, 사고발생 시 접촉부위를 정확히 촬영하고 사고현장에서 연락처를 교환 뺑소니 신고를 방지해야 한다.

경찰도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서민 3不사기범죄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니, 시민들도 모두 앞서 언급한 피해 예방법을 익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 설

돼지열병의 남하를 막아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갈수록 태산이다.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돼지 열병이 양돈 농가들에게 일파만파의 충격을 주더니 이제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렸다.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발생을 공식으로 공표한 날이 지난 17일이다. 그런데 보름도 안돼서 대량으로 살처분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처음에는 반경 3㎞ 내의 양돈 농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게 엉터리 보도였음이 드러났다.

그래도 방역 당국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좀 확산을 막아달라고 당부해야 하는 나날이다. 보도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보통 무서운 질병이 아니다. 폐사율이 100%이니까 말이다. 처음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을 것처럼 발표했는데 그게 틀린 발표였음이 곧바로 확인된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각 광역지자체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비상근무에 들어갔는데 전북도는 더욱더 긴장하는 자세로 돼지 열병의 남하를 막아야겠다.

전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우리 전북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보통 이상의 주의와 보통 이상의 긴장이 있어야 한다. 전국에 발령한 이동중지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곤란하다. 영업 이익에 손해를 본다 해도 명령에 따라야 한다.그리고 여기 더 할말이 있다. 이동 중지 명령은 양돈 농가와 방역 당국 관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관련 업종 일반인들도 순응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수준은 위기경보 단계를 넘어 심각 단계이다. 북한의 평안북도 지역은 돼지가 전멸이라는데 우리 남한 쪽도 그런 사태가 벌어질까 여간 걱정이 아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한 번 발병하면 발병 농가만 죽는 게 아니다. 인근 농가들도 싸그리 죽게 마련이다. 우리 전북 지역에는 지난날 구제역 발병에 관한 쓰라린 기억이 있다. 그때 방역 당국은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근의 모든 돼지들까지 생매장했던 거 말이다. 그때의 불행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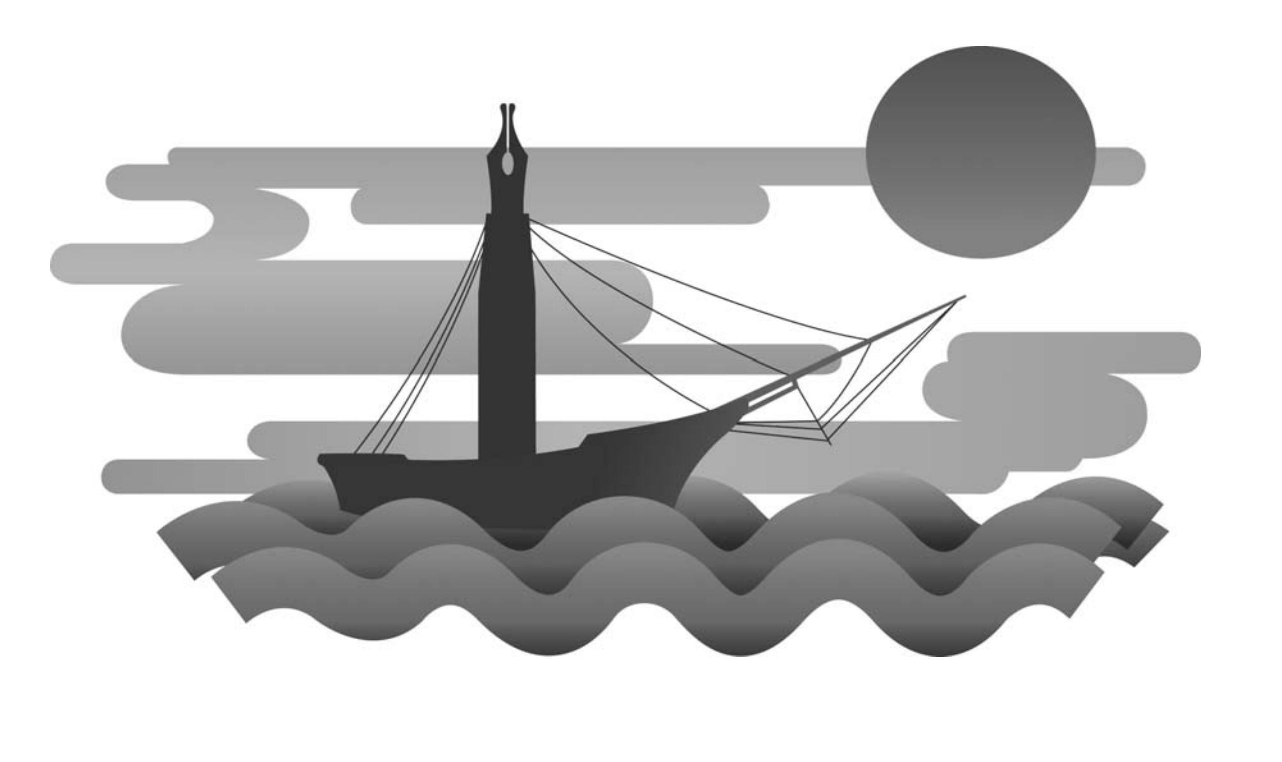
지역 발전을 최고 관심사로

지역 발전은 항상 최고 관심사가 돼야 한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답이다, 지금의 예산 수준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지역의 낙후를 생각하면 8조원 예산이라도 만족을 말할 수 없다. 현 정부도 역대 전임 정부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음이 확인된 이때 전북도는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 군산 경제가 몰락한 지 오래 됐건만 정부와 정계의 고위 관계자들에겐 급할 게 하나도 없는 변방의 일로 무시되고 있는 까닭이다.

도지사와 고위 관계자들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전북이 지난 수년간 광주와 전남에 비해 홀대를 당해왔음은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그 푸대접은 최근까지도 계속 받고 있음이 뚜렷하다. 전북 혁신도시의 연기금대학원 설립은 거론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광주 전남 쪽의 한전공대 설립은 긍정적이다. 혁신도시의 제3금융도시 지정도 새만금 공항건설도 도민들의 열망은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기를 렵원하고 있는데 현실은 백년하청의 기다림만 계속되고 있다.정말이지 이래서는 곤란하다.

정부 측 인사의 발언에 따라 다른 것들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가 사라지길 반복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도민들은 지금 감정이 상해 있다. 전북이 오래도록 광주와 전남의 들러리 신세인데 결단코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지역이 예전과 달리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체 비교일 뿐이다.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하면 매우 낙후돼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역 발전을 항상 중심 주제로 삼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 없다.

도지사와 고위 관계자들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 도내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거북이 걸음을 보이고 있는데 속도감을 보여야겠다.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려면 전북도 관계자들의 능력 발휘가 있어야 한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더 뛰지 않으면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지난 날 여러 번 지적해 왔거니와 무슨 일이고 진취적인 행보가 소망스럽다. 전북도는 제몫 지키기며 대도약이며 스스로 공표했던 것을 상기하는 가운데 부단히 뛰어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